

기준금리 멈췄는데 예대차 되레 확대... 차주부담 커진다

5대 은행 예대금리차 평균 1.5%p
“정부규제 대출 적극확대 어려워
자금 조달할 필요성 크지 않아”

대출금리 기준 채권금리 오르고
원화대출 연체율 10년래 최대치
은행, 가산금리로 대출증가 조절

기준금리는 9개월째 연 2.50%에 머물러 있지만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가계 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대출금리는 6%대를 넘어서는 반면 예금금리는 2%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차주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46%포인트(p)로 지난해 12월보다 0.17%p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의 반등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도 평균 1.504%p로 전월 대비 0.242%p 올라 최근 1년 중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2.50%에 머무르면서 예금금리는 하락한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

반면 대출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해 1월 4.270%를 기록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2.904%에서 2.766%로 0.138%p 떨어졌다.

통상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면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올려 대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움직임이 크지 않다. 실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2조4132억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증시 투자자예탁금은 약 20조원 증가했다.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은행권의 금리 대

응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대출 수요 역시 제한적”이라며 “굳이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금리는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3.00~3.20%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50~0.70%p로 2022년 11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건전성 부담 역시 변수다.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로 10년 만에 다시 0.5%대에 진입했다.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에 신용프리미엄을 반영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금융 소비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매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차주와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리 흐름은 기준금리보다는 규제 환경과 자금 수요 구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가계 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워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하나금융그룹 서클·크립토닷컴과 외국인 국내결제 협업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선도를 위해 선제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의 협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나카드는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CRCL) 계열사 및 글로벌 디지털자산사업자 크립토닷컴과의 협업을 통해 방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국내 결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동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나카드는 USDC를 보유하거나 충전 이력이 있는 크립토닷컴 비자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손님이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크로노스(Cronos) 생태계의 네이티브 토큰인 CRO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

앞서, 하나카드는 지난해 12월 서클(Circle)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USDC 결제·매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하나금융은 그룹 차원의 전사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결제 인프라와의 접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누리 기자

“또 성장 지속 불확실... 정책방향 전환·구조개혁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재조정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시아가 세계 성장의 60%를 견인해온 성장엔진이지만, 과거의 제조업·수출 중심 성장공식이 앞으로도 그대로 작동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공급망의 지정학적 재편과 선진국 산업정책의 복귀, AI·자동화 확산이 겹치면서 아시아의 ‘순풍’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정책의 방식 전환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태국중앙은행 ‘Asia in 2050’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성장 기여도를 먼저 짚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었다. 그는 아시아의 글로벌 성장 기여율이 1970년대 약 20%에서 최근 60%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기여율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10년대 중반 35%까지 올라갔다가 지정학 갈등, 고령화, 부동산 디레버리징 등의 영향으로 낮아져 올해 27%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탈세계화라기보다 재세계화”라는 표현을 쓰고 “교역이 급감하기보다 공급망이 경제논리에서 지정학 논리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변화의 충격도 강조했다. 자동화와 AI 확산으로 제조업이 과거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워지면서, 아시아 신흥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이 평균 13% 수준에서 정체되는 ‘조기 탈산업화’가 진행 중이란 분석이다.

이 총재는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금융·법률·바이오 R&D 등 고부가 서비스는 선진국의 네트워크 효과가 커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사례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정책은 정부가 기업을 직접 선별하는 ‘승자 고르기’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기관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온렌딩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을 ‘선택’이 아니라 ‘조합’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AI 같은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고령화 대응 구조개혁의 성과를 비교·평가해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외부 충격이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거시경제·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강남3구·용산구 집값 2주 연속 하락세

강서구·양천구·중구 등 오름세
경기 0.07%·인천 0.02% 상승

서울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의 집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일 기준 0.09% 상승했다. 작년 2월 첫째주 이후 5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나타나며 조정된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고, 재건축 추진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하는 등 국지적 호조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던 강남3구와 용산구는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0.07%,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0.09% 하락해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용산구 역시 이촌·산천동 위주로 0.05% 내려 낙폭이 확대됐다.

반면 강서구는 0.23% 올라 서울 지역 내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양천구와 중구, 중랑구, 도봉구 등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서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7%, 0.02% 상승했다. 비수도권(지방)은 0.02% 올라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2933명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3.9대 1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아파트 1순위 청약(749가구 모집)에 총 2933건이 접수됐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일 진행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1순위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3.9대 1로 나타났다.

전용 38㎡는 12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15건이 접수돼 1.25 경쟁률로 마감했고, 중형 평형인 77㎡, 84㎡ 타입도 각각 2대 1, 2.59대 1의 경쟁률로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됐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외지인이 청

약 흥행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실제 기타지역 접수 비중이 높았지만 구리 지역 수요자의 참여도 예상보다 높았다는 평가다.

전용 77㎡와 84㎡ 타입은 역과 가까운 단지에 배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호수는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역과 거리가 있는 비역세권 단지에 당첨될 위험이 있다. 대단지인 만큼 역세권 단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평형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만 일부 타입은 미달로 인해 2순위로 넘어갔다. 전용 29㎡, 44㎡, 59㎡A·B·C, 110㎡ 타입은 2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2순위 접수는 5일 진행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신한은행 軍 간부 금융패키지 대출·적금 2개 구성

신한은행은 군 간부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군 간부 특화 금융패키지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군 전용 신용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복무 군 간부의 목돈 마련을 돕는 ‘신한 장기복무 도약적금’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은 군 전용 신용대출의 금리를 3월 중 약 0.4%포인트(p) 인하해 직업군인과 군 관련 종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또한 대출 대상은 지난해 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군 관련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지난 3일 ‘신한 장기복무 도약적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국방부가 주관하고 군인공제회 및 신한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복무 간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복무를 수행하는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월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3년 만기 적금이며, 금리는 기본금리 연 5.5%에 우대이자율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5.7%다.

우대금리는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로 20개월 이상 정기급여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p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로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이 20개월 이상 있는 경우 연 0.1%p가 적용된다. /나누리 기자